착한기업 포스코… 환경개선·안전강화·실적 다 잡았다

posco

환경 투자·신기술 개발, 적용 나서
수익성 악화에 실적 감소 추세 여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가 안전과 환경개선에 힘쓰며 하반기 실적 향상을 위해 달리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전망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인한 실적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경 투자 및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적용에 나섰다.

포항제철소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의 35%를 줄이고 미세먼지, 냄새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에는 대기환경 개선 실적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대기환경개선 TF(테스크포스)는 총 606건의 미세먼지 저감과 냄새 개선사업을 추진해 9월 말 기준 186건을 완료해 30.7% 개선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실적은 1코크스공장 환경혁신의 날 운영,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스테인리스 원료 야드 설비의 살수장치 개선, 먼지 저감을 위한 포그 발생기 설치, 냄새 방지를 위한 수처리설비 냄새 저감설비(RTO) 설치, 코크스로 탄화실 문 밀착부 개선 등이다.

또 인근 지역주민, 사회환경 단체를 제철소에 초청하는 환경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포항제철소의 적극적인 환경개선활동 추진현황을 소개하는 등 양방향 소통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과 더불어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안전시설물 긴급조치반' 신설해 안전 강화에 나선다. 포스코는 안전 최우선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양 제철소에 안전시설물 긴급조치반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안전시설물 긴급조치반은 핫라인을 운영해 신고를 접수 받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현장의 위험수준을 판단해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당일 긴급조치 차량으로 필요 자재와 작업자를 파견한다. 대체 시설물 준비 등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출입을 통제한 후 신고자와 공장장에게 시설물 개선 계획 및 완료 일정을 24시간 이내에 알려준다.

한편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포스코는 9분기 연속 1조원대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6조 3213억원, 영업이익 1조686억원, 순이익 681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기가스틸 등 고부가가치 제품인 WTP(월드 톱 프리미엄) 철강 제품을 앞세워 판매호조를 이룬 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판매 증가 및 트레이딩 호조 등 글로벌인프라 부문의 실적개선이 8분기 연속 1조 영업이익 달성의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올 3분기 연결기준 예상평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3% 감소한 1조20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올라 1월 초 톤당 72.63달러에서 7월 초 122.2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브라질 광산 가동 재개, 중국 위안화 약세 및 철광석 수요 둔화 등 이유로 8월 둘째 주 평균 89.47달러로 떨어졌지만 9월 들어 다시 90달러대로 반등하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제네시스, 북미 담당 CEO에 마크 델 로소

20년 이상 럭셔리 브랜드 전문가
77개월 연속 판매 증가 기록도

마크 델 로소 제네시스 북미 담당 CEO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벤틀리, 아우디 등의 럭셔리 브랜드를 이끌어온 마크 델 로소를 제네시스 북미 담당 CEO로 영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제네시스 브랜드에 합류할 마크 델 로소 CEO는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미주권역 담당 및 본사 제네시스 사업부의 지휘하에 북미에서의 제네시스 판매와 브랜드 전략을 맡게 된다.

마크 델 로소는 25년 이상 자동차 산업에 몸을 담으면서 그 중 20년 이상을 벤틀리, 아우디, 렉서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 집중해온 전문가다. 특히 아우디 미국법인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재직 당시 77개월 연속 판매 증가의 기록을 세우며 연간 20만대 판매 목표를 계획보다 5년이나 앞서 달성했고, 벤틀리 미국법인에 사장으로 부임한 이 후에는 딜러망을 정비하는 등 벤틀리의 미국 사업 전반을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세 무뇨스는 "제네시스 브랜드는 현대로부터 분리된 지 4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판매를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면서 "럭셔리 브랜드 시장에서 탁월한 실적을 남긴 마크 델 로소 CEO의 합류는 제네시스가 북미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미국에서 제네시스의 사업 전략과 운영을 맡았던 어윈 라파엘 제네시스 북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마크 델 로소 CEO의 합류로 향후 미국에서의 판매 및 마케팅 전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NFL(프로미식축구리그) 공식 후원,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베니티 페어(Vanity Fair)와 파트너십 등 스포츠와 라이프스타일 분야를 아우르는 마케팅 활동으로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르노삼성, 역대급 가성비 'QM3' 인기 몰이

Advertorial Corner

전년 比 95.2% 판매 급증
다이내믹 턴 시그널 적용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장착

르노삼성 QM3.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도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차보다는 연비, 디자인, 첨단 기능까지 다방면으로 가성비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며 소비자 마음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르노삼성자동차의 QM3는 '역대급 가성비'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QM3는 감각적인 디자인, 높은 연비, 최신식 편의기능 등 뛰어난 기본 성능을 앞세워 지난달 전년 대비 95.2% 급증한 855대가 판매되며 르노삼성의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QM3는 다양한 기능들을 더해 가성비를 한층 강화했다. QM3는 국내 소형 SUV로는 유일하게 원가가 높은 다이내믹 턴 시그널을 적용했다.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순차적으로 점등되며 마치 물이 흐르듯 유연함을 선보인다. QM3는 RE 시그니처 트림에는 최고급 블랙 나파가죽 시트를 적용해 깔끔한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함께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트리밍을 덧댄 대시보드, 알루미늄 페달 등이 포함된 프리미엄 패키지를 통해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고급스럽고 안락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여기에 글로벌 사운드 브랜드인 보스(BOSE)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함께 장착되어 고품격 사운드를 제공한다.

QM3에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에 태블릿 PC를 연결해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T2C(Tablet to Car)'가 탑재되어 있다. 주행 중에는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꽂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하차 시에는 차체에서 분리해 일반 태블릿 PC처럼 사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매우 높다.

또 QM3는 일부 수입차와 고급차에 적용되는 첨단 주차 보조시스템 '버드 뷰 모드'를 국내 소형 SUV 최초로 탑재했다.

여기에 QM3는 1.5L dci 엔진을 탑재해 뛰어난 연비를 자랑한다. QM3는 17.4㎞/L로 독보적인 복합연비를 자랑하며, 고속도로 주행 시 18.7Km/L를 실현했다. 실제로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 QM3의 연비는 복합연비 20㎞/L를 뛰어넘는 경우도 많다.

이와 함께 르노삼성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QM3에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추가했다. 르노삼성은 프로모션으로 QM3의 판매가격까지 낮춰 역대급 가성비를 완성했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밥캣, 체코에 유럽·중동시장 공략 교두보 확보

소형 건설기계 생산 거점
작년 약 1조원 매출 기록

두산밥캣이 유럽·중동 시장의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 작업을 마치고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 두산밥캣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체코 도브리스에서 스캇 성철박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EMEA(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법인 신사옥 개소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신사옥은 건면적 1561㎡의 3층 건물로, 약 3370㎡ 규모의 사무공간과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두산밥캣은 지난 2007년 체코 도브리스에 2만2000㎡ 규모의 소형 건설기계 공장을 신설한 이후, 2개의 R&D 센터(트레이닝·이노베이션 센터) 및 물류센터를 세우는 등 사업시설 확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 신사옥 완공으로 일련의 기반 조성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두산밥캣의 체코 도브리스 EMEA 법인은 유럽·중동 소형 건설기계 시장의 생산거점으로서, 지난해 약 1만7000대의 제품을 생산해 7억 6500만 유로(약 1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유럽시장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2만여 대의 제품 생산을 기록할 전망이다.

스캇성철박 사장은 "이번 신사옥 개소는 두산밥캣의 유럽과 중동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2019년은 두산밥캣이 소형 장비 시장 리더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중요한 해로, 신기술 도입과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을 재정의하고 선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두산밥캣이 체코 도브리스에 개소한 EMEA법인 신사옥 전경